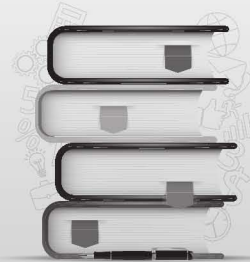


제4차 APT WTSA-16 준비그룹 회의

고영남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



1. 머리말

APT WTSA-16 준비그룹 국제회의는 2016년 10월 25일~11월 3일,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개최 예정인 WTSA-16¹⁾ 준비를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이다. WTSA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T 분야의 총회로 ITU-T 부문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 연구반의 유지·종료, 신규 조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하며 권고안, 연구과제 검토 및 승인, 과제 완료에 필요한 우선순위, 긴급성, 재정적 예측, 일정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회기 당 4년 주기로, 현재 2013년-2016년 회기).

2016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4차 APT WTSA-16 준비그룹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9개국 128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의

국어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등 총 9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APT WTSA-16 준비그룹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차인 금번 회의는 WTSA-16 본 회의 개최 전 마지막 APT 회의로서, WTSA 결의제·개정, 폐지 및 A 시리즈 권고 등에 대한 21건의 PACP²⁾를 채택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연구반 구조조정

ITU-T 연구반 구조조정 논의는 2015년 1월 Review Committee(튀니지 튀니스)에서 영국의 연구반 합병 제안(SG2-SG3, SG9-SG16)³⁾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7월 TSAG까지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쟁점 사항은 SG9, SG11의 폐

1) 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2) PACP: Preliminary APT Common Proposal, 예비 APT 공동 기고서

3) SG2(서비스 제공, 통신망 운용), SG3(과금 및 회계원칙), SG9(광대역 케이블 TV), SG16(멀티미디어)

지 여부이다. APT에서는 지난 제3차 APT WTSA-16 준비그룹(2016. 6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현재의 1개 자문그룹과 11개 연구반 구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번 4차 회의에서는 연구반 현재 구조유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연구반 하위 레벨인 연구과제(Question) 조정에 있어,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ITU-T SG2(서비스제공, 통신운용관리)의 WP2(망 관리 분야)의 SG13(미래네트워크)으로 이관하는 사안이다. 일본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관에 찬성, 중국은 IMT-2020(5G),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치중된 SG13 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현재의 SG2 산하로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다. 논의 결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APT 지역에서는 SG2 WP2에 대한 제안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SG2 Q.4(국제통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적 요소)의 SG16으로 이관하는 사안이다. 연구과제 이관 자체에는 APT 회원국 모두 이견이 없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SG2 Q.4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SG16으로 이관하더라도 WTSA-16에서는 기존 SG16 Question(접근성 관련 Question)에 병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일본 미쓰비시는 준회원국의 입장으로 '기존 Question에 병합하지 않는 조건'의 문구를 삭제할 것과 해당 문구를 추가하더라도 '차기 회기(2017년-2020년)에 SG16 내에서 Question 조정까지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및 일본 제안 원안대로 '기존 Question에 병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SG2 Q.4의 SG16 이관에 합의하였다. APT는 현 연구반 구조를 유지하되 SG2 Q.4의 SG16으로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WTSA 결의 2(ITU-T 연구반의 책임과 의무)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2.A.1 권고 유지

지난 ITU-T TSAG 국제회의에서 A.1(ITU-T

작업 방법)의 '신규 아이템 제안 시 이를 지지(supporting) 하는 멤버 수(활발히 참여할 멤버 수)' 조건(최소 4개 기관 및 4개 국가)을 추가하여 권고 개정을 논의하였다.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은 국제 표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작업방법의 개정 방안을 제안/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표준화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권고 개발 활동을 하는 국내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A.1 개정 반대 기고서(개도국 참여 제한 우려 등의 사유)를 제출하여 APT 공동기고서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유럽, 미국 등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APT 회의에서는 찬성이나 반대 의견 없이 의견을 유보하였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여러 회원국이 우리나라 제안을 지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PACP로 채택되었다. WTSA-16에서 PACP 리더십(lead country)은 우리나라가 확보하였고, 중국,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8개의 국가가 지지(supporting country)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2.3 ITU-T 신규 결의 제정

지난 3차 APT WTSA-16 준비그룹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oT(사물인터넷) 표준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결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화 강화를 위한 신규 결의를 제안하여 우리나라 및 타 국가의 IoT 관련 제안내용을 모두 결합하여 IoT 신규 결의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신규 결의에 대한 에디터십을 우리나라가 확보하여 금번 4차 회의에서도 결의 제정을 주도하였다. 신규 결의 제목은 'IoT 및 스마트시티 & 커뮤니티 표준화 강

화'로, 우리나라가 주도권(lead country)을 확보하였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가 지지(supporting country)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중국 주도로 'ITU-T IMT-2020 표준화 활동 강화', 말레이시아 주도로 '클라우드 기반 사고 기록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ITU-T 표준화 작업' 등 총 3건의 신규 결의가 PACP로 채택되었다.

2.4 ITU-T 결의 개정 및 폐지

현재 ITU-T 분야의 결의는 결의 1(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51개의 결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주요 신기술 보안 표준화 가속화 등을 위해 결의 50(사이버 보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ICT 활용에 있어 신뢰 및 보안 구축, 사이버보안에서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e-commerce 등 고령을 제안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결의 50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가 최종 PACP로 채택된 결의 50 개정안에 대하여 주도권(lead country)을 확보하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지지(supporting country)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결의 개도국과의 표준 격차 해소를 위한 결의 44에 '회원국 간 컨설팅을 통한 표준화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ITU-T 활동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결의 55에 '여성의 표준화 활동 문제점 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 및 반영되었다. 그 외에, 결의 70(장애인을 위한 전기통신/정보통신 기술 접근성)에 '장애인의 ICT 접근성 관련 기술보고서 개발' 내용 추가 등 총 15개의 결의 개정안인 PACP로 채택되었다. 이동통신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IMT-2020 신규 결의 제정에 따라 기존 IMT-2000 관련 결의 38(IMT 2000과 IMT 2000 이후 시스템에 대한 ITU 섹터 간 조정) 폐지 등 2개의 결의 폐지안이 PACP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존결의 38의 폐지에 주도권(lead

country)을 확보하고 다른 회원국은 지지하기로 하였다.

3. 맺음말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한국ITU연구위원회 산하에 WTSA-16 대응준비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약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APT WTSA-16 준비그룹 대표단 구성,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4차례에 걸친 APT 지역의 WTSA-16 준비그룹 국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WTSA-16 국제회의에 대한 국가대표단 구성, 각 결의 제·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기구 및 주요 국가의 논의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ITU-T 연구반의 작업방법인 A.1 권고 유지, IoT 신규 결의 제정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결의 50 개정 등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WTSA-16 대응준비반에서 마련한 ITU-T 의장단 진출전략을 기반으로 각 회원국 홍보 및 주요국과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ITU-T 연구반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활동 무대에서 의장단 진출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가 국제 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